

고품격 경제정책 전문매거진

경영저널

인터넷신문 www.경영저널.com

THE CRITICAL JOURNAL OF MANAGEMENT AND ECONOMY

축제 컬러풀대구페스티벌

Cover story 권영진 대구시장

Economy 중국 '한한령' 업계몸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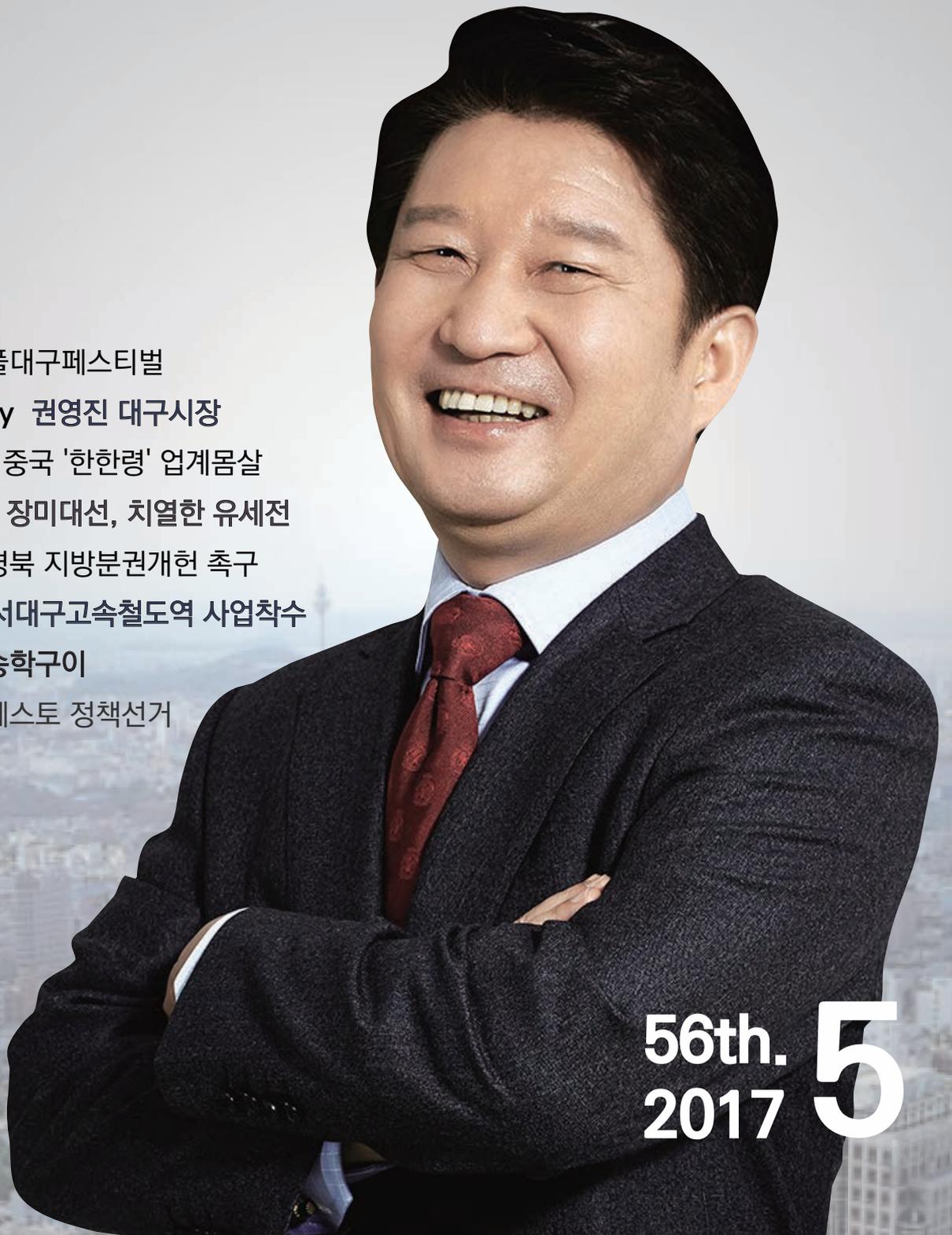
Hot issue 장미대선, 치열한 유세전

로컬 대구경북 지방분권개헌 촉구

Industry 서대구고속철도역 사업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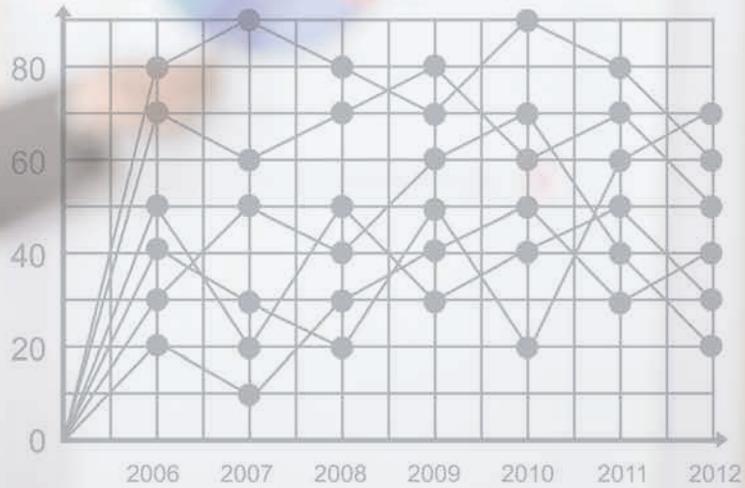
음식명가 송학구이

기획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56th. 5
2017

www.**KEPI**.or.kr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한 | 기 | 연



- 6 **축제**
2017컬러풀대구페스티벌
- 8 **economy**
중국 사드보복 '한한령' 업계몸살
- 10 **cover story**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 14 **Hot경제용어**
1코노미
- 16 **Industry**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협약 체결
- 18 **Hot issue**
코앞에 다가온 '장미대선', 치열한 유세전
- 20 **이슈돋보기**
대구 둘레길 노선 확정, 기대효과는?
- 21 **통계로 보는 이슈**
대구 시민, '더 위험해졌다' 47.5%
- 22 **이달의 대경인**
안영태 법무사
- 24 **정책해설**
경상북도, 더불어 행복한 교통복지 구현
- 26 **정책제안**
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정부3.0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하겠습니다.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공유

개방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소통

협력



행정자치부
www.gov30.go.kr



Contents

www.경영저널.com
MAY 2017

5



- 28 **로컬**
대구경북, 지방분권 개헌 촉구
- 30 **정책해설**
용역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 32 **법률해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이해
- 34 **교육**
대구시, 공보육 강화 26개 사업
- 36 **청년**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청년도시 대구' 힘찬 발걸음
- 38 **청호(靑湖)칼럼**
헌법 개정의 당위성과 시대적 요구
- 40 **기획**
2017 대선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의 필요
- 42 **지자체가 된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 44 **칭찬합시다**
김공열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 46 **지역명소**
대구의 봄, 5월 꽃놀이 명소
- 48 **음식명가**
송학구이
- 50 **문화가 소식**
- 53 **지역 소식**

경영저널

통권 제55호

| | |
|-----------|---|
| 발행인·인쇄인 | 이진구 |
| 편집장 | 홍순대 |
| 취재 | 권찬미, 안은주, 김원현 |
| 사진 | 송권미 |
| 편집디자인 | 권찬미 |
| 편집위원 | 윤정현, 민경량, 한혁동 |
| 인쇄처 | 신흥인쇄(주) |
| 발행처 | http://www.dgnews.co.kr |
| 본사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
| 대구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
| 대표전화 | 대구 053) 766-1368~9 FAX 053) 766-0379 |
| 등록번호 | 경북, 라 06418 |
| 창간 | 2007년 11월 5일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
| 구독 및 광고문의 | 053) 766-1368 |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90,000원
 정가: 8,000원
 예금주: (주)경영저널
 대구은행 224-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53) 766-1368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사진 및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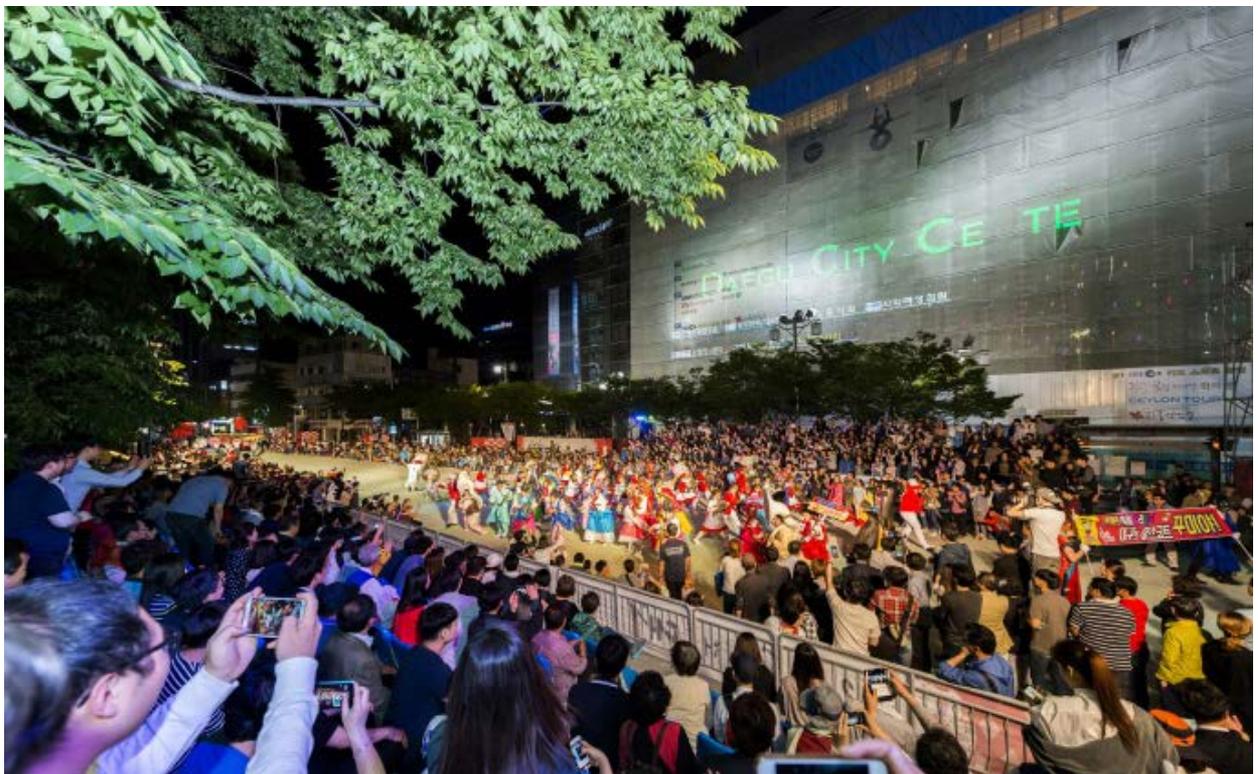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용지 1장(글자 10토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 대구경북시도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메일: k_journal@daum.net / 전화 053) 766-1369

축제

'2017 컬러풀대구페스티벌'

도심 속의 가면무도회

모디라~ 컬러풀 ! 마카다~ 퍼레이드!



축제의 달 5월! 대구에는 매년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화려한 퍼레이드와 무도회, 도심 각지에서 열리는 거리예술제, 아트마켓과 푸드트럭을 모두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17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이 그 주인공!

축제의 달 5월! 대구의 대표 축제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이 5월 27-28일 양일간 대구도심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축제는 '도심 가면무도회'라는 컨셉의 시민퍼포먼스 오프닝이 중앙네거리에서 공평네거리 구간에서 실시된다. 희망풍선과 열기구 등을 활용하고 '희망'을 주제로한 이 오프닝 이벤트는 예술가, 무용수, 군인 등 다양한 계층의 2만 5천명의 시민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퍼포먼스로 축제의 시작을 화려하게 알린다.



축제의 킬러 콘텐츠인 컬러풀 퍼레이드는 ‘모디라~컬러풀! 마카다~퍼레이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국제보상으로 일대에서 진행 된다. 총 상금 1억 3,000만원을 걸고 진행될 컬러풀 퍼레이드는 페스티벌의 메인 프로그램인 만큼 120여 팀 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과 화려한 축제의 향연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 구역으로 나뉘어져 진행되는 거리예술제는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D(Dynamic), A(Art), E(Entertainment), G(Good), U(Unique) 파트는 각각 해외우수공연팀, 대한민국 대표 예술단, 대구 전문 예술팀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앙로 네거리를 시작으로 종각네거리 일대에서 세계 각국의 전통춤과 퍼포먼스, 대구 지역 공연팀의 무대, 매직쇼 등 다채로운 축제의 장을 펼친다.

시민들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일대에는 ‘컬러풀 아트마켓’, ‘컬러풀축제 및 구군 흥



보관’, ‘백화점 블랙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예술가들의 창작 수공예품, 그림, 사진 전시, 캐리커처 그리기, 액세서리와 조각품, 생활소품 등이 판매되며 보물찾기, 컬러지기를 이겨라, 미션 스티커 붙이기 등으로 구성되는 이벤트는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축제의 백미인 먹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되었다. 지난 해 축제 먹거리로 첫 선을 보이며 호평을 받았던 ‘대구 10味’ 부스와 ‘서문시장 야시장 판매대’에 이어 올해는 공개모집을 통해 전국 각지의 푸드트럭 40여대를 유치해 한강이남 최대 푸드 트럭 페스티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구시 정풍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구의 봄 축제가 선거 후 '국민 화합의 한 마당'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전세계인이 대구를 찾아 대구의 봄 축제를 만끽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권찬미 기자



중국 사드 보복 '한한령' 업계 몸살, 대책은?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확정된 후부터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 보복 '한한령'(한류(韓流)를 제한(制限)하는 명령(命令))으로 피해가 현실화되며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문화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은 지난 3월 2일 '방한금지령'을 노골적으로 선포했으며, 저가 여행 단속의 명분으로 해외 단체 관광의 20% 축소를 지시하고, 현지쇼핑을 1일 1회로 제한했다. 이는 유커(중국인 관광객) 매출 의존도가 높은 면세점과 화장품, 여행 숙박업계 전반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한령이 본격 발동한 3월16일부터 4월9일까지 중국인 관광객이 무려 63.6% 감소를 보였다. 인천공항 출국자 수는 하루 9만 명 수준에서 6~7만 명으로 30%가량 줄었으며,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은 올해 초 1조 천 5백억 원에서 3월 1조 593억 원으로 18.8%나 급감했다.

한류 열풍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중국은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했다. 한중 합작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을 맡은 한국 배우가 갑작스럽게 하차 통보를 받거나 CF 모델로 발탁된 한국 연예인이 예고 없이 중국 연예인으로 교체되는 것, 한국 드라마 대부분이 방송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무역 시장의 상황도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롯데그룹의 경우, 현지 진출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및 위생조사에 들어갔으며, 중국 내 99개 점포 중 74곳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 한 달 기준 5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 자체적으로 휴점을 결정한 점포까지 총 87지점으로(4월 20일 기준), 롯데의 매출 손실 규모는 약 1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격으로 해석된다.

또한 웨이보(중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유통업계의 타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 여론조사센터에 의하면 삼성과 롯데마트가 소비자 해외 브랜드 만족도 조사에서 비호감 순위 6위와 8위에 올랐다.

이에 정부는 '한한령'에 대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시아와 인도, 그리고 중동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수출, 관광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며, 중국 시장을 대체할 신시장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기존 중국예산의 일부를 일본, 무슬림 시장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류의 타격을 맞은 방송 콘텐츠 산업을 위해 145억 원을 투입하고, 콘텐츠 지원 예산 1160억원을 조기 집행, 관광업계에 500억의 특별 용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자금지원 규모를 종전 75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늘렸다.

서욱태 한국무역협회 상하이부장은 한 경제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한한령이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한류 기업들은 당분간 대체시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포스트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합작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개발하는 등 중국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3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사드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정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 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다만 사드배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찬미 기자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

“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nterview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Profile

1953년 4월 7일 생

청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한나라당 총재실 총재보좌

한나라당 대표실 특별보좌관

서울디지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제18대 국회의원 (서울시 노원구을)

새누리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기획단장

민선 5기 대구광역시장

현) 대구광역시장 (2014.7.1~)



대구가 변하고 있다. 전통산업에서 친환경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내륙의 닫힌 도시에서 세계로 열린 도시로의 탈바꿈이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다. 현장 소통실, 시민원탁회의,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시민소통도 활발하다. 청년들을 위한 센터가 지어지고 축제와 관광지를 찾는 발걸음이 크게 늘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창조대구를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권영진 시장의 성과다. 민선 6기 반환점을 돌고 후반기를 보내며 대구 혁신의 발판을 부지런히 마련중인 그에게 대구의 미래를 물었다.

Q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 대구'라는 시정 비전을 앞세운 민선 6기, 대구의 변화를 체감하나?

A 민선 6기 시장으로 취임 후, '오로지 대구 시민의 행복과 대구를 새롭게 창조해 보겠다'는 신념으로 밤낮없이 고민하고 뛰어왔습니다. 대구는 산업구조가 취약한 데다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방향성을 갖지 못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실기(失期)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산업단지, 첨단단지 등 신성장 거점 개발과 물·의료·에너지·미래형자동차·사물인터넷 등 친환경 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대구가 탈바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55만 명을 넘어섰으며, 대구국제공항은 해외 12개 노선 확대, 이용객 250만명 돌파로 사상 최초로 흑자 공항으로 전환 되어 내륙의 닫힌 도시에서 세계로의 열린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시민행복 반드시 창조대구'의 실현은 취임 초에 강조했다시피 시장 혼자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과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간 현장 소통시장실, 시민원탁회의, 주민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시민소통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민선 6기가 끝날 때쯤이면 '시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행복해진 민선 6기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다사다난한 2016년이였다. 영남권 신공항 무산과 서문시장 화재 위기를 지난 소회를 밝히자면?

A 지난 한 해는 시민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영남권 신공항 무산과 서문시장 화재 등 위기 속에서도 위대한 대구시민 정신으로 통합 신공항 조성의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서문시장 화재 때에 보여준 성금모금 등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 또한 자갈밭을 옥토로 바꾸어 가는 소의 우직함 석전경우(石田耕牛)의 마음가짐으로 시정을 바꾸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Q 대구시는 청년 유출이 오랜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아는데, 특히 중점을 두는 사안이 있다면?

A 시는 지역 청년들이 머무르며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대구를 건설하기 위한 중기계획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작년 말 수립하여 '2020 청년희망 대구'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그를 바탕으로 17년도에는 일자리가 있어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의 도시', 청년이 주체가 되는 '참여의 도시', 문화교육생활이 보장되어 청년이 살고 싶은 '즐거운 도시'의 3대 중점과제 달성을 위한 59개의 주요



cover story

청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유치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 동시에 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 관주도적 창업지원시스템을 탈피하기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및 관련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 성실실패자의 재기를 돕는 창업실패자특례보증지원을 통해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청년기본조례 제정, 청년센터 개소로 인프라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연구모임인 청년ON과 청년위원회 운영으로 청년들의 참여경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Q 내년이면 대구도 노인인구비율 14.5%의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A 고령사회 대책으로 대구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돌봄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올해 노인 복지관을 2개소 추가 확충하고 어르신행복드림센터를 준공할 계획이며 치매 걱정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증치매어르신의 인지기력향상을 위한 기억학교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독거노인 돌봄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인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이 활발하다. 앞으로의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은?

A 대구시는 현재 물,의료,에너지,미래형자동차,IoT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첨단산업도시로 대전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료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침복단지를 중심으로 의약품 기업이 유입 추세에 있고, 지역 의료기기산업 연평균 성장률이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어 미래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또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11월 착공하였고, 롯데케미칼을 비롯 16개 우수기업을 유치, 한중 물산업 합자계약 체결을 하는 등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외에 에너지 자족도시, 전기자동차 생산도시, 대구 전역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축 등의 신성장 동력사업을 적극 육성하며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앞으로 5대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첨단산업도시 기반을 확충하여 '살고싶은 대구, 청년도시 대구' 만들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Q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개장과 지하철 3호선 개통에 이어, 올해는 서대구 고속철도역 사업에 착수했다.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인가?

A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고속철도와 대구권 광역철도가 정차할 수 있는 통합역사로 대구 서남부지역의 랜드마크 및 발전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개통시기와 맞추어 2020년 개통을 목표로 '16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7년 실시설계와 공사를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직접 기본설계하여 단순한 역 건설이 아닌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대구시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완공 후 개통이 되면 동대구역 혼잡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 지역의 85%이상을 차지하는 서·남부 산업단지의 148만명 주민, 근로자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대구 산업의 타격이 현실화 되고 있다. 다각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어떤 대응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A 현재 사드보복에 따른 지역 수출기업 애로현황으로 식품, 화장품, 안경테, 의류기 등 소비재 제품군을 중심으로 통관거부, 기술장벽 강화 등 피해 사례 발생 중입니다. 먼저 금융지원 및 통상정책 강화로 수출부진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사드피해 수출 기업 금융지원을 1,0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200억원 추가지원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상반기 조기집행 및 하반기 마케팅사업비를 증액 확보했습니다. 또 對중국 및 미국시장 의존에서 탈피, 유망 품목을 포함한 잠재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시장 다변화(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에 집중해 수출 초보기업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사업도 중점 추진하여 장기적 수출 증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광시장을 위한 대응방안으로는 대구시와 지역 관광업계가 힘을 합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현지 홍보설명회를 개최했고, 8월에는 대만, 홍콩, 11월에는 베트남, 필리핀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Q 지방 분권 개헌 촉구에 앞장서고 있다. 지방분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A 1995년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을 알렸지만 아직까지 예산, 인사, 입법, 행정 등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2로 지방세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4대6 규모로 중앙 집중의 심각한 불균형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번에 개헌을 통해 헌법에 지방분권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우리 헌법前文과 총강 제1조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고 천명하고, 본문에는 재정권, 입법권, 조직권의 지방이양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개헌을 통해, 주민이 지역의 일에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는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 민선 6기 반환점을 돌아 내년 민선 7기 선거를 앞두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두는 사안은?

A 올해는 민선 6기가 출범한지 4년 차가 되는 해로 시민들이 미래첨단산업도시로 변모하는 대구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는 대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해결을 위해 대구경북과 상생협력을 통해 그 실마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미래 경제도시로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과 낙후지역의 개발로 도심을 재창조하여 지역이 균형발전하는 것, 성공적인 공항 이전으로 대구경북 관문으로서 신공항을 건설하고, 구군 및 산하 공기업으로 시정혁신을 확산하고 내면화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국정 혼란과 경기 침체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 공동체를 위해 위대한 시민정신으로 양보와 희생을 감수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시민들을 모시고 일하는 행복한 시장임을 매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경제 체질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창출', 청년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더 젊고 역동적인 대구건설, 생활 속 즐거움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데 시정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민사회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 가꾸어 가는 21세기형 '신공동체사회'로의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층에 의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물론, 사회 구성원들의 책무와 참여가 중요시 되는 '시티즌스 오블리주'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와 같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미 기자

‘1코노미’

1인 + economy 합성어

혼밥, 혼술에서 카공족 혼행족에 이르기까지



1인 가구 520만 시대. 지출규모 86조 원. 지난 2016년 이를 반영하듯 1인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가 속속 등장했다. 혼자 밥을 먹고(혼밥), 혼자 술을 먹는(혼술) 것 뿐만 아니라 홀로 커피를 마시며 공부를 하며(카공족), 혼자 영화를 보고(혼영), 혼자 여행을 하는(혼행) 등 ‘혼족’의 일상은 젊은 세대의 일상을 대변하며 브라운관과 스크린에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2017년에 이르러 이런 혼족을 아우르는 신조어로 ‘1코노미’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다. 이는 1인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혼자만의 소비 생활을 즐기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2017트렌드 리포트-김난도 교수 저)

‘1코노미’족의 등장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기업들이다. 대다수의 기업이 1인 소비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혼자 칸막이를 치고 밥을 먹는 1인 식당에서부터 영화관 싱글석, 1인 코인노래방 등은 대학가와 번화가에 등장한지 오래며, 금융권에서는 1인 스마트 적금을, 여행사는 1인 여행상품을 내놓는 등 혼족을 잡기 위한 구애가 활발하다.

이는 단순히 ‘1코노미’족의 소비시장이 넓어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교육비, 양육비의 부담이 적어 상품 구매력이 높고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에 관대하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일반 고객층에

비해 2배 이상의 제품 평가와 리뷰를 남기는 ‘빅마우스’ 효과를 내는 마케팅 효과까지 독특히 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그들은 놓쳐서는 안 되는 ‘파워 컨슈머’인 것이다.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1코노미’족을 잡기 위해서는 1인 세대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구매력이 높은 2050대로 이루어진 그들은 ‘소형’, ‘간편, 효율’, ‘맞춤형 서비스’를 추구하고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여유’를 추구한다. 연령별로 20대는 다양한 활동과 음식숙박비 지출에, 중장년층은 음식숙박 및 식료품비와 주거비에, 65세 이상은 식료품 및 주거비에 소비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접분석을 통해 살펴본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패턴-성영애)

‘1코노미’ 세대의 소비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0년 120조원, 2025년 156조원, 2030년 19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싱글족의 소비지출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0년 60조원에 비해 2배에서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혼족’들을 겨냥한 소비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독일과 일본은 이미 1인 소비시장의 강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세계 2위 내수 시장을 보유하는 동시에 가족중심의 문화가 강한 중국마저도 약 16%인 7,442만 가구가 1인 가구로 집계되었고 2025년경에는 1억 가구를 돌파할 전망이다. 권찬미 기자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시면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립니다

- 접수기간 2017. 1. 25 ▶ 11. 30 (선착순)
- 접수처 관내 해당 자동차 대리점

경제적인 전기차



경제적 연료비 휘발유 대비 **95% 절감**
(500원 충전으로 최대 100km 주행)

환경적 소음 **0** 미세먼지 **0**

세부 지원사항

전기차 충전 전기기본요금 3년간 100% 면제 + 전력사용요금 50% 할인
연간 15,000km 운행시 전기차 연료비 10만원(동급 휘발유 차량 연료비 200만원)

- // 차종별 최대 2,000~250만원까지 지원
(승용차 2,000 / 화물차 2,200 / 이륜차 250)
- // 완속 충전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 세제 혜택 최대 460만원까지 면제
- // 유료도로 통행료 100% 감면, 공영주차장 60%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제공('17년 상반기)
- // 대구은행 전기차 구매시 3%대 저금리 대출금융 지원
- // 17년까지 급속충전기 78기, 완속충전기 290기를 설치
(급속 충전기 면적 5km²당 1기 설치)

문의 : 대구광역시청 달구벌콜센터 120
환경부 전기차 전용 통합 콜센터 1661-0970

※ 대구시 홈페이지 상세 내용 참조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협약 체결 2020년 개통 목표로 올 연말 첫삽

대구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7일 시청2층 상황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상훈 국회의원, 김의식 시의원, 이재화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대구 서남부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이자 서부권 핵심 랜드마크가 될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오는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올 연말 첫 삽을 뜨게 된다. 높이 20미터, 길이 100미터 규모로 건설될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기존 철로밖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철로 위에 건물을 짓는 선상역사 방식이다. 철로 위에 역 건물을 짓는 선상역사는 철로변 양측 접근이 쉬워 역 건설에 따른 주변 개발 효과가 높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서대구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총 사업비는 모두 573억 원이 투입된다. 대구시는 2017년 예산 100억원 (국비 36억원, 시비 64)을 이미 확보했으며, 실시설계, 공사착공,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원활한 건설 추진을 위해 대구시는 기본설계, 용지매수,

행정지원 및 운영협약 업무를 담당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실시설계, 건설공사, 인허가요청 등 업무를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이 완료되면, 역 주변 역세권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인근 공단지역 활성화로 고용증대가 이루어지고 교통중심지로서 산업·금융·업무의 거점지역으로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서대구 고속철도역 영향권으로 대구지역의 85%이상을 차지하는 서·남부 산업단지의 148만 명의 주민, 기업인, 근로자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대구 고속철도위·수탁 협약체결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서대구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역세권개발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대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서부지역의 발전과 대구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편집국



Daegu Food Tour EXPO 2017

제16회 대구 음식관광 박람회

2017. 6. 8(목) ▶ 11(일)

exco

주최 | Colorful DAEGU 대구광역시

주관 | exco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동시개최

K-FOOD EXPO 2017
(제17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

- 1:1 구매 및 수출상담회
- 지방 최대 규모의 식품산업전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이 주최
- 법정 위생교육(교육 대상 약 14,000명 국내 최대)

- 다양한 지자체 연계사업
- 대구를 빛고을 동영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 영호남 민간교류 1호 사업
- 대구-광주, 전남-경북 등 다양한 영호남 지자체 연계사업 운영



Ⓜ 코앞에 다가온 ‘장미 대선’, 치열한 유세전

TK민심잡기 나선 대선주자 분주한 발걸음 19대 대통령 공식 선거 운동 22일간의 레이스

춧불 민심이 가져온 5월, 19대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치열한 선거 유세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공식선거운동에서는 대구를 향한 후보자들의 유세전이 뜨거웠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보수표의 표심이 갈리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식선거운동기간 유력 후보 5인 행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4월 17일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선거 사상 처음으로 대구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단에 의하면 “그간 야당이 어려웠던 대구 경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아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반영”이다. 경북대학교를 방문한 문 후보는 이후 2.28민주의거 기념탑에 참배한 후, 대구 성서공단으로 이동했으며, “영호남과 지역을 넘어서서 전국에서 고루 지지받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며 준비된 대통령, 일 자리 대통령으로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홍준표 후보의 발걸음 역시 서울과 대전을 찾은 첫날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향했다. 동성로에서 유세전을 펼친 홍준표 후보는 “북한과 특권층에 강하고 서민층에 한없이 부드러운 홍준표가 되겠다” 라며 대구 민심 잡기에 나섰다. 강력한 서민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서울과 호남 유세를 마친 공식 선거운동 이틀날 18일 대구 표심공략에 나섰다. 서문시장을 찾은 안 후보는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대구백화점에서 손학규 선대위원장과 함께 유세전을 펼쳤다. 안 후보는 “대구가

VOTE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대구가 통합을 선택해야 한다. 대구가 안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대구·경북(TK) 지역의 지지를 호소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직전까지 TK와 PK에 역량을 쏟은 만큼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특히 유 후보는 4월 13일 첫 TV토론회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토론회 준비에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이며 완주의 의지를 비쳤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방 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지역 민심 공약에 나섰으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구호에 맞게 철도 노동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하는 등 행보를 이어갔다.

이와 같은 대선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2일間に 걸쳐 이루어지며 19대 대선에서 TK표심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 지지율과 이유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1일 공개한 2017년 4월 3주 대선후보 지지율과 지지이유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41%, 안철수 30%, 홍준표 9%, 심상정 4%, 유승민 3%, 없음/의견유보 12%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416명, 자유응답) '정권 교체/적폐청산'(13%),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12%), '믿음/신뢰'(8%), '준비된 대통령/검증된 인물'(6%), '깨끗/청렴'(6%), '경험/연륜'(5%) 등의 이미지가 두드러졌다.

홍준표 지지자들은(88명, 자유응답) '대북 안보'(21%), '결단력/박력'(13%), '믿음/신뢰'(10%), '보수 대표'(7%) 등 그가 강조하는 '강한 대통령 후보' 이미지에 부합되는 내용을 주로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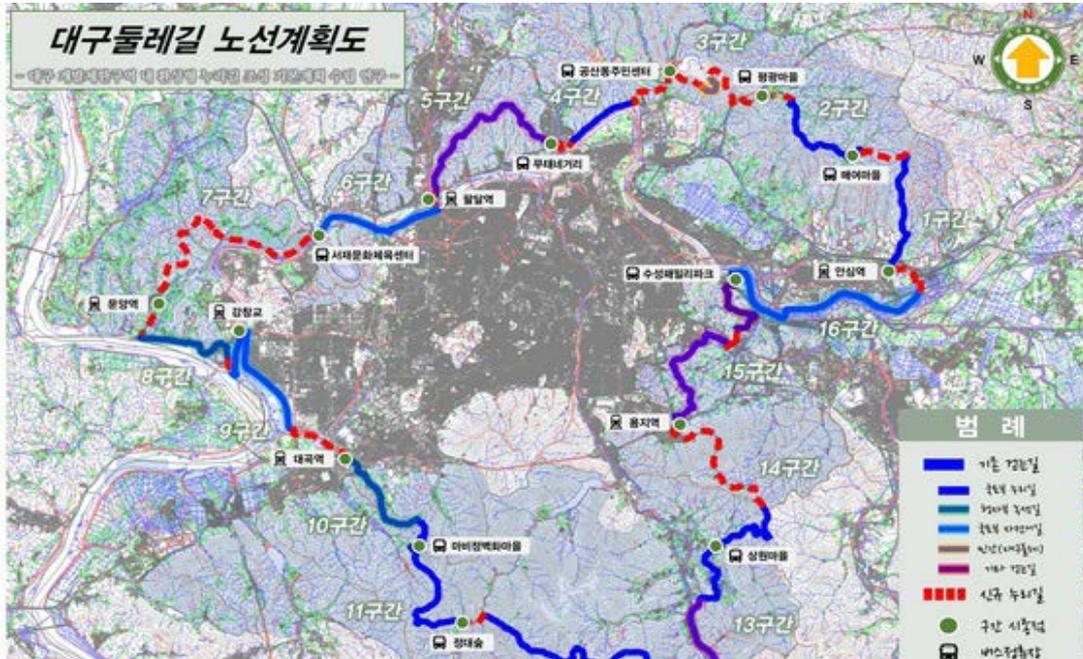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301명, 자유응답) '새롭다/참신함'(14%), '깨끗/청렴'(13%),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9%), '유능/똑똑함'(6%)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유승민 지지 이유는(34명, 자유응답) '주관/소신'(26%), '정책/공약이 마음에 든다'(17%), '합리적'(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심상정 지지 이유는(40명, 자유응답) '정책/공약이 마음에 든다'(29%), '노동자 편'(12%), '진보/개혁적'(12%) 순으로 답변했다.

권찬미 기자

대구 둘레길 노선 확정, 기대효과는?



대구 외곽의 산과 들, 강을 연결해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대구둘레길 노선이 최종 확정됐다.

둘레길은 강정보 디아크와 진천수변공원, 우록마을, 신천습지 등을 연결한 총 연장 138.6km 노선, 16개의 테마구간으로 이뤄진다.

대구 둘레길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모든 구간의 시·종점은 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장으로 지정하여,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9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중 환경 문화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이 세워진 대구 둘레길 사업은 올 연말까지 4억5000만원을 들여 둘레길 노선 정비와 안내시설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

둘레길에는 문화자원, 자연자원, 특산물 및 먹거리 자원을 연계해 이용객이 걸으면서 다채로운 체험과 먹거리를 맛볼 수 있으며, 개인별 취향에 따라 안전하고 편안하게 구간을 선택해 노선을 즐길 수 있다.

대구시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구간별

경사도, 평균 고도, 소요시간 등 코스별 보행 난이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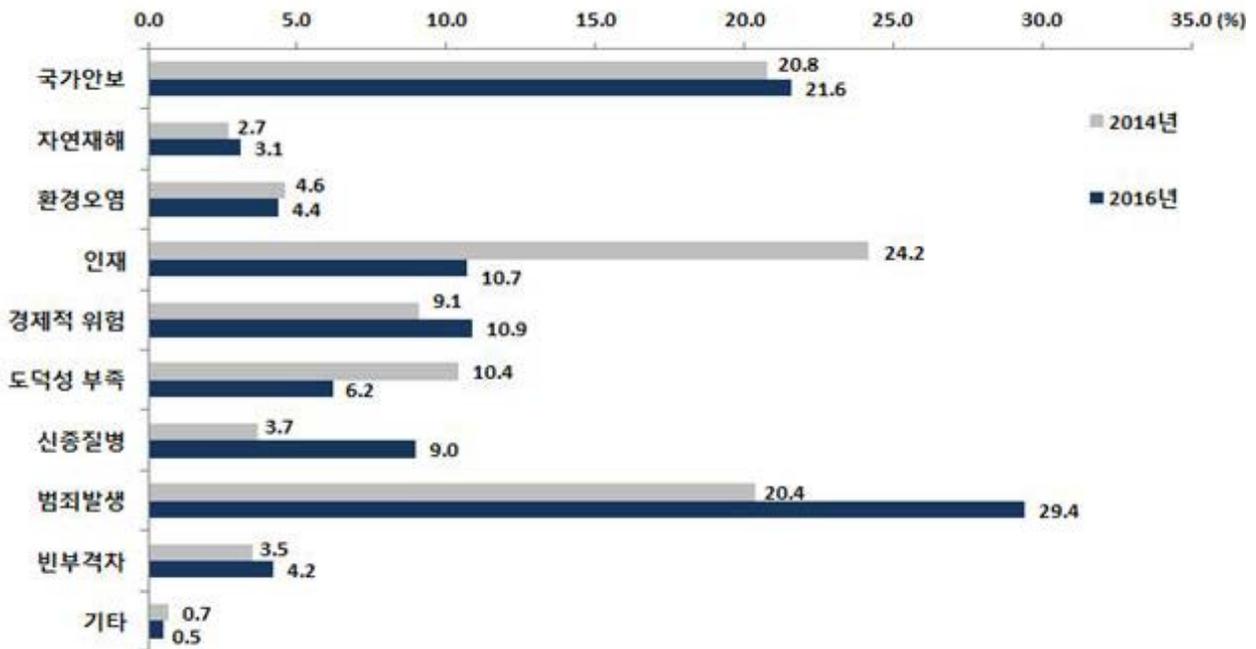
또 기존 팔공산왕건둘레길, 화담마을 누리길, 마비정 누리길 등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걷기코스를 대구둘레길에 포함시켜 벤치, 정자, 휴게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둘레길 조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여가공간을 창출하고 인근 주민의 관광소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거리, 먹거리, 이야기 거리가 있는 도시외곽의 둘레길이 시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주민의 관광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면 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대구 시민, '더 위험해졌다' 47.5% 응답

범죄 발생, 신종질병 두려움 증가



대구 시민들이 사회 안전상태 변화에 우리사회가 5년 전보다 '더 위험해졌다'는 응답에 절반에 가까운 수가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으로는 범죄 발생(29.4%), 국가안보(21.6%), 경제적 위험(10.9%), 신종질병(9.0%) 순이며 대부분의 부문에서 불안하다는 비율이 안전하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왔다.

특히 2014년에 실시된 조사에 비해 인재 분야에 대한 불안감은 눈에 띄는 감소(13.5%p 감소)를 보였으나, 범죄 발생 분야에 대한 불안감은 2년 전보다 9.0%p 증가했고,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도 9.0%로 2014년(3.7%)보다 5.3%p 증가했다. 이는 메르스 증후군,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신종 질병의 출현과 문지마 범죄의 증가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지표는 21일 동북지방통계청이 공식 발표한 '2016 동북지역 사회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비율은 2014년 50.3%에서 2016년 42.2%로 감소했으나,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12.3%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도로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39.8%와 36.1%로 '야간보행에 두려운 곳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대처방법으로는 '무섭지만 그냥 다닌다'가 52.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해 마땅한 대처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 정도는 대구가 경북보다 높게 기록됐다. 경북에서는 전반적인 생활 스트레스가 49.3%를 기록하고 직장생활 64.0%, 학교생활 46.4%, 가정생활 40.6%의 스트레스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대구는 전반적인 생활의 스트레스가 53.3%, 직장생활 77.0%, 학교생활 51.2%, 가정생활 38.4%로 나타났다.

권찬미 기자

이달의 대경인



본보에서는 ‘하나되는 대구경북, 경제 통합에 기여하는 정론’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달의 대경인’ 코너를 진행한다. ‘이달의 대경인’은 기획재정부 소관 학술연구기관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과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재단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하고 있다. 선정 결과, 이번 달에는 안영태 법무사가 선정됐다.

안영태 법무사

"든든한 초석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것"



‘이달의 대경인’으로 선정된 안영태 법무사는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관으로 17년 재직했고 현재는 6년차 법무사로 활동 중이다. 총 20여년 이상을 대구경북 법조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안영태 법무사는 “이달의 대경인에 선정돼 영광스럽다”면서, “대구경북의 든든한 초석으로서 앞으로의 맡은 바 소임도 다 할 것”이라는 선정 소감을 밝혔다.

초석이 되고 싶다는 그의 말과 행보는 일치한다. 대구광역시 지방검찰청 형사조정 위원,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 수성구 범어1동 희망 나눔 위원, 수성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달서구 공유토지분할위원 등 대구각지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대구를 위한 활발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崇德廣業’(덕을 높이고 업을 넓힘)이라는 좌우명과 업무신조를 가진 그에 대해 이육 사무국장은 “성품이나 인맥도 좋지만, 배울 점이 많다”고 입을 떼며 이어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바름을 실천하는 분”이라 소개한다.

그의 법률 사무소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서민들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돕는다. 파산 면책률 100%를 자랑하지만 민원인을 기만해서 수입료만 떼어 먹는 일이 없도록 가려 받으며 받은 민원은 끝까지 책임지는 정직의 아이콘이기도 하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법무사 보수표 폐지에 대해 물었다. 그 또한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업무 경중에 따라 자유로운 경쟁이 필요하며, 어려운 분에게는 무료로도 가능하도록 상하한 없는 자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안영태 법무사는 “모두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모두가 리더 일 수는 없기에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할 때에 온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며 “대구경북에 애정을 갖고 구성원들을 받치는 든든한 존재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노력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찬미 기자

좋은 기억,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치매 어르신들께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신설

- 서비스 내용**
- **주야간보호·방문요양** : 인지기능 악화 방지·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인지활동형 프로그램(회상훈련 등) 제공
 - **방문간호** : 건강관리, 가족상담 등 월 1회 서비스 제공

인정 절차 우편·방문·팩스·인터넷으로 신청 → 직원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의결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신설과 함께, 수급자 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3등급, 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총 5등급 체계로 개편
(**중전**) 3등급(51점 이상 75점 미만) → (**개편**)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등급 세분화

- ※ 상대적으로 요양 필요도 높은 3등급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량(월 한도액) 확대. 4등급자의 경우 기존 3등급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 유지

경상북도, 더불어 행복한 교통복지 구현

이용 승객 적은 벽지노선과 버스 미운행 지역 대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오지지역 교통 사각지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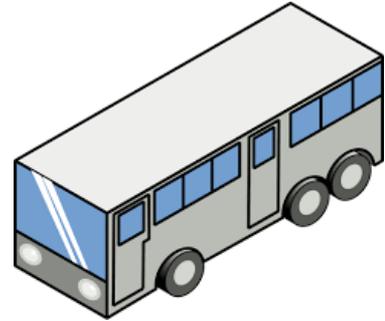
경상북도는 이용 승객이 적은 벽지노선과 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하여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확대했다. ‘수요응답형 교통(DRT)’, 일명 ‘시골버스’ 사업은 정해진 노선을 일정하게 운행하는 기존 노선과는 달리 지역 특성과 여건 등을 두루 반영해 주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시간과 구간·운행횟수를 최적화하는 방식이다.

수요응답형 교통(DRT) 운행 모델

운행 모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규 버스노선이 없는 구간에는 기존노선의 종점인 읍면소재지와 오·벽지 마을을 잇는 노선이 신설 운영된다. 또 기존 노선은 있지만 수요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벽지노선의 경우에는 대형버스 대신 중소형 버스를 투입하고, 운행도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다. 이용요금은 각 지자체 마다 운행여건에 따라 상이하며 최소 100원부터 기존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200원으로 결정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경북도는 우선 올해 총 6억 5천 5백만원을 투입해 5개 시·군, 13개 노선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지속 보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시군별 | 차종 | 운행노선 (요금) | 운행지역 | 사업비 (백만원) | 비 고 |
|-----|----------------|------------------|----------------------|-------------------|----------|
| 포항시 | 12인승 버스(3대) | 3개노선 (100원) | 죽장면 두마리, 상옥리, 하옥리 | 210 (도62,시148) | '15~, 계속 |
| 경주시 | 15인승 버스(2대) | 3개노선 (1,200원) | 산내면, 서면 양남면, 양북면 | 145 (도50,시95) | '16~, 계속 |
| 안동시 | 15인승 버스(1대) | 1개노선 | 벽지노선 | 70 (도20,시50) | 신규 |
| 칠곡군 | 25인승 버스(2대) | 3개노선 (1,200원) | 지천면,기산면 | 180 (도60,군120) | '15~, 계속 |
| 울진군 | 25인승 버스(1대) | 3개노선 (1,200원) | 기성면 삼산리, 이평리, 방울리 | 50 (도20,군30) | '16~, 계속 |

경상북도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지원사업.(자료제공=경상북도)



‘수요응답형교통(DRT)’은 교통전문가,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이지만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도 있다. 버스 및 택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다.

수없이 긴 역사와 산업사회의 많은 기업들에서, 헤아릴 수 없는 개인들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변화를 추구해야 할 당사자의 소극적인 태도는 결국 스스로를 도태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가혹한 환경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역사학자 토인비의 문명 평가 사례가 너무 거창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변화에 대응하고 모색해 나가는 것은 거대한 문명이나 한 사회의 정책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경북도는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한 변화를 추구하고, ‘수요응답형교통(DRT)’ 정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상북도는 교통 혁신 중

한편, 경북은 면적이 넓고 산간지역이 많아 교통 소외·불편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각 시·군별로 ‘행복택

시’, ‘천원택시’, ‘별고을택시’ 등의 택시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콜버스 제도가 도입 중에 있다.

콜버스는 2015년부터 포항시 2억 1천만원 3개노선(죽장면 두마리, 상옥리, 하옥리), 칠곡군 1억 8천만원 2개노선(지천면, 기산면)을 시작으로 2016년 경주시 1억 4천 5백만원 4개노선(산내면, 서면, 양남면, 양북면), 울진군 5천만원 3개노선(기성면 삼산리, 이평리, 방울리)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올해는 안동시 1개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처럼, 경상북도내에 5개 시·군에서 9대의 콜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김천시는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선개편 및 벽지노선 수요응답형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교통 접근성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기초적인 복지”라며 “앞으로 시골버스와 택시 지원을 확대해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는 교통 소외지역에 희망의 다리를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현 기자

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대구 관광지의 변신

대구는 여행지라고 하기엔 조금 낯선감이 있다. 경주나 부산 같은 관광도시의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행객이 많기 때문이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구에 관광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다. 대구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과 먹거리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대구의 관광지는 매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대구시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방문하는 관광자원 개발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김광석 길에서부터 치맥 페스티벌까지

김광석 길, 근대화골목길, 계산성당, 대구최대규모 서문시장, 팔공산 케이블카, 동화사, 약령시, 수성못, 아양기찻길, 도동축백나무숲, 도시철도 3호선 등의 다양한 관광지뿐만 아니라 들안길 먹거리타운, 앞산 카페거리, 평화시장 닭동집골목, 동인동 찜갈비골목, 안지랑 곱창골목 등 먹거리로 유명한 명소까지 재정비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방문화축제,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컬러풀대구페스티벌, 달구벌관등놀이,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구 치맥페스티벌, 수성못 페스티벌, 대구국제바디페인팅페스티벌, 국제 오페라 축제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인지도가 높은 축제도 여럿 개최하고 있다.

특히 대구치맥페스티벌의 경우 2013년도 온라인 검색어순위 1위, 2015년도 단일행사 88만명 참여로 높은 홍보효과와 함께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대구시 대표축제로 자리 잡았다.

단순히 집에서 즐기던 치맥이라는 음식을 많은 시민과 관광객, 외국인들이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도록



만든 것이다. 치킨산업의 발생지인 대구의 치킨과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맥주를 기초로 치킨업체와 맥주업체의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K-pop 공연 및 락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연행사와 치킨요리 공연 및 페이스 페인팅행사와 함께 치킨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행사도 개최하여 문화·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민축제로 개최된다.

김광석 길(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은 2009년 11팀의 작가들이 뭉쳐 골목의 벽마다 김광석과 그의 노래를 그리면서 시작되었다. 김광석의 서정적인 노래 가사들이 적힌 벽들은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감성 여행을 선사하였고, 타지에서도 와보고 싶어 하는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다.

김광석 길과 달아있는 방천시장은 1945년 해방 후 서문시장, 칠성시장과 더불어 대구를 대표하는 시장으로 손꼽혔지만 쇠락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었으나 김광석 길과 더불어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시장으로 몰려들어 다시금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대구 관광산업의 위기

그러나 대구시 관광의 미래가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최근 사드배치로 중국의 한류규제가 강화되면서 2016년 7월 이후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더욱 큰 문제는 대구 관광지에 대구시민의 방문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대구는 보수적 성향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수용이 어렵고 변화에 둔감한 경향이 있다.

대구에 방문하는 지인이 관광지를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당당히 설명하고 제안할 수 있는 대구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대구 관광에 대한 긍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구시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발 벗고 나서서 대구 관광지를 방문하는 애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대구시는 관광을 통한 시민의 지역 이해도 증진과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명품 관광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무료로 '대구관광시민아카데미'를 시행하고 있다. 실내교육 3일, 현장답사 및 수료식 1일을 마치면 수료증이 수여된다. 하지만 대구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피부에 와 닿는 '명품 관광도시 대구'는 아직 먼 이야기 인 것 같다. '대구관광시민아카데미'에서 더욱 확대하여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시민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 역사, 동성로 인근에 대구 관광지 사진전 등을 개최해 대구의 관광지 홍보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 관광지 사진전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여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시 공무원, 마을 새마을회,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내 고장 러브투어'를 실시하여 대구시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구시 관광의 발전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수업과 연계하여 대구 근현대사를 배울 수 있는 근현대사 투어를 실시하여 대구에서 나고 자란 시민이라면 누구나 대구의 근현대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명품 관광도시 대구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선진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구시민을 위한 관광 정책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본다.

안은주 기자

대구경북, 지방분권 개헌 촉구

지방분권개헌 골든타임, 2018년 개헌 실현되나?
대선 주자 5인 지방분권개헌 공약 제시



대구경북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촉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포함한 영호남 8개시도지사는 4월 13일 공동으로 대선예비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및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대선공약반영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건의문을 통해 "영호남의 상생발전을 통해 하나 된 모습으로 국민 대통합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낡은 체제를 털어내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국가경쟁력을 견인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합심해 나아가겠다"며 협력을 다졌다.

공동건의문에는 지방분권 개헌과제 7건,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과제 4건, 공동정책과제 5건, 동-서간 인적, 물적 교류와 상생발전을 위한 SOC사업 8건을 담았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 3월 '지방분권개헌 대구결의대회'를 열고, 남경필 경기지사, 여야 대구경북 국회의원, 일반 시민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으며, 경북도도 2월 포항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자치제도 개편과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는 지난 3월 14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구경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지방분권 결의에 대해 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들도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 개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인 문재인(더불어민주당)·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후보 모두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 시기를 2018년 지방선거로 못 박았고, 공약에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대선후보 10대 공약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에서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공약과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서 지자체 및 민간단체로 국가사무의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의 정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행방안으로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에서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투표 대상확대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또 지방소비세를 20%,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4.24%로 단계적 확대(재정분권 강화)할 것과 국가 사무의 과감한 지방 이양, 광역·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의결 기구화,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권찬미 기자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정책가치 실현을 위해
맞춤형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입니다.

www.kpar.kr



주요 사업

- 사회여론조사
- 고객만족도조사
- 기업이미지조사
- 광고효과조사
- 행정만족도조사
- 선거 및 공론조사
- 마케팅조사
- 기타여론조사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2006년 설립 이래
100여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책결정을 위한
최고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재단법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

본 원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새터길 30-15 (신한리 468-6)
Tel) 053-811-2820

대구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38-3

Tel) 053-766-0038 Fax) 053-766-0379

용역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공공부문 용역의 품질향상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력 중심'의 입·낙찰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용역의 품질향상 등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제24차 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추진배경으로는 공공부문 체결 용역계약은 2013년 18.5조원(16.4%)에서 2014년 19.4조원(17.4%)으로 2015년에는 21.7조원(18.2%)으로 비중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용역 계약제도는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부문 용역분야는 범위가 넓고 유형이 매우 다양하나 일률적으로 공사분야 계약방법을 준용하는 등의 낙찰자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가격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높은 품질의 용역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업의 혁신적인 서비스모델 개발을 유인하는데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과 동시에 일부 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과 잦은 계약관련 분쟁 등도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술력을 우대하는 입·낙찰제도 도입,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불공정 계약관행을 근절하는 방안이 논의 되었다.



종합심사 낙찰제 및 성과기반의 용역제도 도입

높은 품질의 용역결과물을 확보하고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가격 위주의 낙찰자 선정방식을 가격뿐만 아니라 용역수행능력(기술보유, 투입인력 역량 등)과 사회적 책임을 종합평가 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개선하여 기술력을 우대하는 입·낙찰 제도를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용역결과물의 품질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성과기반의 용역제도'도 도입키로 하였다. 이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에 대해 적용되되, 용역 유형별 적용대상은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정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간아이디어 공공지원 및 발주시스템 개선

서비스산업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논의된 방안으로는 공공조달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4차 산업 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간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토록 현재 시장에 없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공구매를 통해 상용화 까지 원하는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SW용역의 제한서 평가 및 사업관리가 단순 투입인력 위주에서 산출물 품질 확보를 위한 핵심인력 위주로 이루어지도록 개편하는 한편, 시스



템 유지관리업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시스템 구축사업의 통합발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불공정 계약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불공정 계약관행 근절 방안으로 일부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근절하고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하였다.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대가없는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과업변경의 사유, 범위, 대가 산정 등을 담은 '과업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용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정비하고, 지나치게 높은 지체 상금율도 인하(일 0.25% → 0.125%, 연 최고 30%)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공기관 계약에 대한 분쟁조정 대상을 입찰절차 관련사항에서 지체상금 분쟁, 불공정 계약 등 계약관련 분쟁까지 확대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분리, 항목별 평가점수 공개 등의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 용역의 품질이 향상되어 재정 효율성이 제고되는 한편, 공공조달의 새로운 서비스모델이 창출되고 기술경쟁이 촉진되는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지현 수석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이해



경영평가의 목적

정부에서는 지방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의 경영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기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경영관리기반 마련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의 효율성 증대 및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경영평가 시행의 법적 근거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과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짐을 인식하고 지

난 2014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9.25. 시행)'을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25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이행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그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경영평가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경영실적의 평가와 경영상의 조치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경영실적의 평가는 자치단체장이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행정자치부는 이를 통합 공시하는 것이다. 둘째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또는 해당 기관 임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이

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정부에서는 책임경영과 경영의 효율성 증대라는 경영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들은 장학재단, 복지재단, 문화(관광)재단, 신용보증재단, 청소년 재단, 지방의료원처럼 비영리·공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이어서 '경영의 효율성 증대'라는 경영평가의 목적과는 상충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위탁

지자체에서는 상기 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별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지자체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의 정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기관장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 평가 및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의 내용 중 특히 주목할 사항은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다. 이 조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단체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그리고 조문에는 위탁기관에 대한 요건을 ①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②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③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④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경영실적평가 위탁기관의 요건에 부합한 기관인지 근거서류(법인 설립허가증, 실질적인 근무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학위증명서, 실적증명서 등)를 명확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일 명확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면 부적격 업체가 경영실적평가를 수행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향후 경영평가의 방향은

경영평가의 평가지표는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되고 있어서 비슷한 유형의 기관이라도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통일된 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경영평가 표준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 현재는 표준(안)이 도출된 단계이고 올해 안에 표준모델에 대한 시범적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표준모델이 확정되면 같은 성격의 기관 간의 평가점수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관의 성격은 동일하다고 해도 그 기관이 속해 있는 지자체의 상황은 저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에서는 표준모델을 확정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확정해야 할 것이다.

홍순대 편집장

대구시, 공보육 강화 26개 사업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 대폭 '확대'



대구시는 올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육아가 즐거운 도시 대구'를 비전으로 맞춤형 보육 정착 및 공보육 강화를 위한 보육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대구시는 '16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서 구분된 종일반과 맞춤형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보다 더 내실화하고,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등 공보육 기반 강화,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 2017년 보육정책 추진을 위해 26개 사업에 총 4천7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맞춤형 보육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종일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운영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실시,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취업 모(母)의 어린이집 이용 보장에 적극 나선다('16. 12월 종일반 69%, 맞춤형 31%).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공보육 기반 강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14개소 개원하고 우수 민간 어린이집 10개소를 공공형으로 신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수요 발굴에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16년 기준 54개소에서 17년 기준 68개소(4.6%)로 확대할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과 민간·가정의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 재 인증 어린이집 393개소에 대해 7억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며(개소당 100~350만원), 학부모들이 직접 안전, 건강, 급식 등을 점검하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전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단체가입비 3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한다.

또 대구시는 어린이집 상,하반기 합동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해 민원 발생, 부정수급 의심시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어린이집을 조성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동시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을 매년 인상 지원하고, 보육교사 휴가 등에 발생하는 공백을 대체할 교사를 현재 66명에서 69명으로 확충하며, 보육고충상담센터 운영과 육아종합 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보육교직원의 고충,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올해에도 공보육 기반 강화를 통해 우리 대구의 영유아가 더욱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2017 도시재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8.16(수)~8.23(수)

공모목적

- 대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재생 창조거점에 대한 시민들의 창의적인 도시 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과 호흡하는 도시재생 정책 수립

공모대상

- 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8개소)
- ※ 각 공모 대상지역의 위치 및 구역은 '참고자료-1' 공모 대상지역 현황 참조

참가자격 : 제한없음

- 전국 대학생 및 일반인 누구나 (개인(법인) 혹은 팀, 팀은 4명 이내)

시행절차 및 일정

| 구 분 | 기 간 |
|------------|---------------------------------|
| 공 고 | 2017. 3. 16(화) |
| 질의기간 | 2017. 3. 16(월) ~ 6. 30(토) |
| 접수기간 | 2017. 8. 16(수) ~ 2017. 8. 23(수) |
| 1차 심사 결과발표 | 2017. 8. 28(월) |
| 2차 심사 및 시상 | 2017. 9. 15(금) |

※ 심사는 1차(서류심사)와 2차(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1차 통과자에 한함)로 구분하여 진행
※ 참가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시상내역

| 구 분 | 작품수 | 시상금 | 저작권료 | 상징훈격 |
|-------|-----|-------|-------|-----------|
| 대 상 | 1 | 250만원 | 250만원 | 대구광역시장상 |
| 최 우 수 | 1 | 150만원 | 150만원 | |
| 우 수 | 3 | 50만원 | 50만원 | |
| 가 작 | 5 | - | 30만원 | 대구경북연구원장상 |

· 저작권료는 대구시가 '저작권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또는 이용허락)'의 대가로 수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상한액임(저작권재산권의 범위와 대가는 별도협의)
※ 심사결과, 목적과 작품수준을 고려하여 시상내역을 변경할 수 있음

작품 작성방법

- 출품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제출
- 작품제출서 1부 | 공고지침서-별지 제1호 서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작품패널 1매 | 아이디어를 담은 계획안 (A0 사이즈, 5mm 폼보드)
- 작품설명서 7부 | 자유형식 (A4 사이즈, 10장 이내)
- 전산파일(CD)1매 | 작품패널 및 작품설명서 수록
(편집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300dpi 이상)

작품 제출

가. 접수기간 : 2017. 8. 16(수) ~ 2017. 8. 23(수)

나. 제출방법

- 1 방문접수 | 대구파이낸스센터 17층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접 방문
- 2 우편접수 | (4215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3 대구파이낸스센터 17층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진대회 담당자 앞)

※ 방문접수 시 평일 근무 시간(09:00 ~ 18:00) 내 제출

※ 우편접수 시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타문의

- 대구광역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gucenter.or.kr>)
- 전화번호 : 053-770-5192
- 이 메 일 : hykssy66@dgi.re.kr

주최 |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주관 | 대구광역시 창의도시재생지원센터

* 본 인쇄물은 대구광역시의 보조금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청년도시 대구’ 위한 힘찬 발걸음

청년정책모임 ‘청년ON’, 정책제안으로 지역청년 목소리 반영



대구광역시청년센터가 ‘청년도시 대구’를 목표로 ‘길이 보이는 사회, 길을 만들어가는 청년’을 사업방향으로 걸고 지역 청년들을 위한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사업개시 이후 눈에 띄는 성과다.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모임인 ‘청년on’은 대표적인 청년정책지원 분야 사업이다. 대구에 사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on’모임은 대학생부터 직장인, 창업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청년들이 모였다. 지난해는 21건의 청년정책이 제안되었고, 5건이 최종 채택되어 대구시 예산에 반영되기도 했다. 올해 선착순 모집한 2기 청년ON 참가자는 100여명으로 이들은 일자리, 창업, 교육, 주거, 청년문화 등 10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각 소그룹별 주제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2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청년정책아카데미는 ‘함께 만드는 청년정책’이라는 주제의 역량강화 교육과 ‘정책지도 그리기’라는 주제로 (재)대구여성가족재단의 이진인 부 연구위원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주도하에 청년문제 이슈를 발굴하고 청년이 참여하고 제안하는 청년정책지원,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와 청년공간운영 활성화를 돕는 청년활동지원, 교육과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청년성장지원, 청년기자단과 데이터 구축 사업 등 청년활동홍보지원을 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월 16일, ‘2020청년희망 대구’ (공식명칭:제1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2017~2020))을 발표하고, 청년이 꿈을 키우는 기회의 도시, 청년이 살고 싶은 즐거운 도시, 청년이 주체가 되는 참여의 도시를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역량 개발, 시민참여와 교류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올해 ‘2020 청년희망 대구’에 기반한 10대 청년정책 세부과제(총 59개 사업)로 청년창업 성공기반 구축,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체계 강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역대학과 협력시스템 활성화, 청년 참여와 교류로 창의적 정책 발굴, 지역 맞춤형 청년통계 생산 및 관리, 대학생 역량강화 및 복지지원, 안정적 거주환경 조성, 청년 예술가 지원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청년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선정해 발표했으며, 총 1천 428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일상 속 작은 청년 문제부터 시와 청년,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제시하다 보면 청년 일자리나 세대 간 소통 부재 같은 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ON’에서 참신한 청년정책이 발굴되어 시정에 반영되고, 참여한 청년들은 서로 간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청년의 사회 참여 의식 확산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찬미 기자

주최·주관 **소셜런투유**
후원 **대구광역시**

Melón 티켓

2017 SOCIALRUNTOU PRESENT

청년 청춘힙합 대구로 페스티벌

GO WELL DAEGURO HIPHOP FESTIVAL VOL.3

2017.05.27 토요일 오후 1시~
대구 두류공원 야구장

티켓 | Melón 티켓 | 21,000원



헌법 개정의 당위성과 시대적 요구

2016년 하반기에 시작된 대한민국의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고, 법치주의에 위반'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고, 법정 구속되면서 5월 장미 대선에 이르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원칙의 결과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나라가 어려울 때 '민초의 힘과 선비의 정신'으로 극복해왔다. 국민 개개인이 참여해 나라를 지탱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때,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을 비로소 다시 국민의 품으로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현행 헌법 기본원리는 첫째, 권력분산의 원칙, 둘째, 견제와 균형의 원칙, 셋째, 국민 주권의 원칙, 넷째, 기본권 보장의 원리, 다섯째, 헌법개정방법의 합리성 등으로 규정되었고, 헌법의 성립 유래와 헌법의 기본정신을 천명하는 전문 이하로 국민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과 함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립도생(本立道生). 상황이 어지러울수록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옛 선인의 가르침처럼, 나라가 어지러울 때일수록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원리를 정하는 최고의 법이다. 모든 국가는 어떠한 형태든 헌법이 존재하며, 현대의 헌법은 로벤스타인이 말하고 있는 권력과정에서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담당자의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지난 '87년 6월의 저항과 함성이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낸 민주주의의 결과로 제6공화국이 탄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공화국은 물론,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국정농단사태가 없었던 적이 없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1,000만 명의 촛불 시위는 국민의 요구와 개헌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와 경제계 및 법조계의 오랜 유착을 끊을 길은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의 고리를 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 집권적인 정치행정 구조를 지방분권형으로 모든 조직과 구조 등을 개정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중복되는 업무는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지배적인 시장 경제 구조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임금체계의 균형화 등을 통한 제4차 산업에 대한 경제체제 정비와 함께 남북통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헌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이진구
경영저널 대표이사·발행인



안정된 노후를 위한 농지연금



청년 창업농을 위한 농지지원



누가 만들어 갈까요?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후계농 육성



도시민을 위한 귀농귀촌지원

희망의 농어촌 행복한 농어민



2017 대선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의 필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촉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 되면서 2017년 대선이 5월 9일로 앞당겨 졌다. 후보자를 검증할 시간이 짧아진 만큼 각 후보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가 중요해진 것이 사실이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전문가들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후 공약 이행과정과 결과에 검증, 평가를 거치는 선거를 말한다.

따라서 성숙한 매니페스토 선거가 정착될 경우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여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되고, 후보자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한국식 매니페스토 운동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어원인 라틴어 마니페스투스(manifestus)는 ‘증거’, ‘증거물’이란 의미로 이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들어가 마니페스토(manifesto)가 되었는데, 그때는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같은 의미로 1644년 영어권 국가에 소개되었고, 이 단어를 오늘날 우리사회가 쓰게 된 것이다.

한국식 매니페스토 운동은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바람이 불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이후 사회적인 운동으로 정착된 매니페스토 운동은 이후 2015년 매니페스토 연구회 및 실천본부 설립으로 이어졌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매년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선정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실천하는 기관과 장, 기업인 등에 대해 시상한다. 또 매니페스토 이행평가 및 평가토론회 사업 등을 통해 공약 이행도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공개를 제안하고 있다.

19대 장미대선의 과제와 매니페스토

19대 대선의 주요 쟁점에는 일자리 정책과 대북정책, 개헌과 교육개혁, 사드배치 등이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

에 접어들고 서로를 향한 검증의 날이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지면서 네거티브 전략이 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또한 조기 대선의 여파로 일찍이 대선 공약집과 대차대조표를 발간해왔던 과거 대선에 비해 공약집 발간이 늦어지는 등 유권자들이 비교적 후보자 공약의 면면을 알기 어려워지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나쁜 정책 핵전쟁만큼 위험, 좋은 정책 후보 선택해야”한다고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주장한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각 후보별로 총 공약수가 몇 개가 되는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대차대조표는 있는지, 대선 공약집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시도별 지방 공약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 봐야한다고 전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9대 대선 후보자와 선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거정보포털(nec.go.kr)을, 후보자의 공약과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 웹사이트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후보자토론회를 선거운동기간(4월17일~5월8일)중 총 4회 개최한다.

매니페스토 10년, 나아갈 방향은

10년차에 접어든 한국 내 매니페스토는 아직 보완점이 많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아직 국민 절반이 매니페스토에 대해 모른다” 했고, “비합리적인 선거 문화와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여전히 심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선거는 정당과 후보자의 가치와 철학, 정책대안들을 지역주민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이며, 매니페스토 운동은 오늘 날 대한민국에 필요한 성숙한 민주시민운동이자 가꾸어 가야 할 선거문화”라며 “표폴리즘적 공수표와 거짓은 응징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공약을 실천해나가는 후보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찬미 기자

지자체가 된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안전한 도시 대구, 함께 만들어 갑니다"



Q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간략한 약력 및 소개

A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실질적인 안전체험장의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난의 대처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체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팔공산 동화집단지설지구 내 부지 14,469㎡, 연면적 5,843.3㎡, 지하1층·지상2층 규모에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 개관한 1관과 사업비 53억원으로 2013년 개관한 2관이 있습니다.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2.18 지하철 참사 등 재난과 안전사고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체험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재난 대응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대구 유일의 종합안전체험장으로서 주로 어떤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

A 안전교육은 단순 주입식 교육에 비해 재난상황이 연출된 곳에서 직접 참여하는 체험교육이 효과적입니다.

주요 체험시설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만의 특화된 공간으로 2.18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에 대한 교훈을 얻고 가상의 화재 상황 연출 후 연기와 어둠속을 탈출하는 지하철 안전 체험장과 지진·산악·소화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생활 안전체험장이 있는 1관, 실제 크기의 모노레일 상황과 동일한 조건을 연출하여 직접 탈출하는 모노레일 체험장 및 화재 시 물을 직접 뿌려 불을 끄는 옥내소화전 체험, 거실에 연기가 가득찬 상황에서 탈출하는 주택화재 농연 체험장, 고층건물에 설치된 피난기구인 완강기를 직접 타고 지상을 탈출하는 완강기 체험장이 있는 2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총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다녀갔다고 들었다. 주 체험층은 어떻게 되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A 2017년 3월 말 기준으로 1,233,038명의 체험객이 다녀갔습니다. 그중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학교, 유치원, 공공기관, 회사 등 단체 체험객들이 주를 이루며, 주말에는 가족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지하철 사고 관련 영상 및 당시 현장 실제 전동차를 관람하신 후에는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 대형재난은 안전불감증 및 평소 실전 연습 부재에서 비롯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녀들과 동행하여 체험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체험을 받은 어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체험관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공산 관광벨트와 연계하여 외국인 체험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안전도시로서 대구를 알리는 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Q 가장 반응이 좋고 참여도가 좋은 교육은 ?

A 2003년 192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구 중앙로역 지하철 사고로 인해 설립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지하철안전체험장을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지하철 안전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단연 지하철 체험이 가장 유익하고 좋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Q 지하철 3호선 개통과 함께 모노레일 체험장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나?

A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면서 안전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같은 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는 모노레일 체험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달리 지상에서 운행하는 도시철도 3호선에서 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모노레일 체험장에서는 발생가능한 사고에 대한 대처요령과 안전장치, 대피 방법 등을 교육 받을 수 있고 직접 탈출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Q 2016년 화재나 지진과 같은 굵직한 재해의 위험이 있었는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도 어떤 변화나 영향이 있었는지?

A 2016년 서문시장 화재, 경주지진 등 굵직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자연스럽게 안전체험에 대한 참여도 늘었습니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는 좀 더 현실감 있는 체험이 가능하도록 노후된 지진체험장을 시설개선하였으며 대구기상지청과 연계한 지진안전체험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높아진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Q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이 있다면?

A 2018년 개관 10주년을 준비하고 시설 노후 및 후발 체험관 건립에 따른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고자 외부 연구용역 의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팔공산 관광벨트 활성화와 더불어 고품격 안전체험명소로서 거듭나기 위해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대구 시민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 마디

A 백견(百見)이 불여일행(不如一行)이라는 말이 있듯이, 직접 보고 몸으로 체험해봐야 오래 기억되고 효과도 높습니다. 공자님께서도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만 되나, 직접 해 본 것은 이해 된다”며 경험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실제로,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다양한 안전체험을 통해 각종 재난시 대처능력을 키워둔다면,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운영하며, 무료로 참여 가능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안전 체험을 통해 위기 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홍순대 편집장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술선수범 아이콘’

김공열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시골 쥐”는 가장 가까이에서 김공열 주무관을 지켜본 황금2동 안정국 동장이 김공열 주무관을 한마디로 평가한 말이다. 겉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화려함보다는 수수하더라도 정신적인 평화를 누리는 삶이 더 낫다는 구전설화 ‘서울 쥐 시골 쥐’에 등장하는 ‘시골 쥐’의 마인드를 김공열 주무관이 그대로 가졌다고 한다.

92년 고산1동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25년간의 공직 생활 동안 직장동료에게는 술선수범의 자세로, 민원인에게는 가족의 자세로 임해 온 그에게서는 밝은 미소가 시종일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상대방을 나이대로 대하자’는 업무 신조를 가지고 직업과 신분을 떠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뻘이면 아버지로, 형님뻘이면 형님으로 응대하며 민원인들을 상대한다.

황금2동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민 수는 적으나 원룸과 빌라가 많아 청소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환경 및 건설, 안전총괄 등 외근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그는 이러한 황금2동의 어려운 문제를 찾아다니는 ‘자전거타고 다니는 민원해결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업무에 열정적이다.

직장동료는 그를 보고 어려운 일에도 주저 없이 먼저 나서는 술선수범의 아이콘이라고 말했다. 주민에게 배부할 김장김치, 무거운 짐 등을 나르는 일과 같은 누구나 귀찮아하고 나서기 꺼려하는 일에 항상 앞장 서는 모습이 보기에도 좋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고 한다. 이러한 열정으로 황금2동 주민숙원 사업인 동 청사 이전 사업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쓰레기 격일 수거제를 매일 수거제로 바꾸는 행정복지센터 추진 업무에도 앞장서서 지원하고 있다.

마라톤은 그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운동이다. ‘인생은 마라톤’이 좌우명이며, 마라톤을 통해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기본에 충실하자’, ‘불굴불급(不狂不及)’이라는 깨우침을 얻었다고 한다. 본인의 능력에 맞지 않게 처음부터 무리해서 질주해 나가면 곧 오버페이스로 추월당하고, 욕심이 지나치면 완주할 수 없는 마라톤에 매번 도전하면서 깨우친 말들이다. 그가 마라톤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어느 종목보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정직한 운동이며, 나와의 기록싸움이자 상대방을 짓밟는 게 없는 가장 평화로운 경기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그의 아름다운 심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는 평소 신문 읽는 것을 좋아해서 직원들에게 다방면으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료이다. 어린 시절 들었던 일하시다가도 공자, 맹자를 읽으시던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아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자세로 신문읽기, 동영상 강의 등 본인의 현재 위치에서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공무원 사이에서는 ‘한 사람을 세 번 만나야 퇴직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김공열 주무관은 “황금2동에서 좋은 사람들과 같이 근무할 수 있어서 좋고, 남들이 다시 같이 근무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은 공직생활에서의 김공열 주무관의 술선수범 정신이 더욱 기대된다.

안은주 기자

Imagine
your
Korea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유망축제]

약령시 **愛** 꽃피는 건강한 **점**음



개장359주년 2017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DAEGU YANGNYEONGSI HERBAL MEDICINE FESTIVAL

2017. **5.3** [수] - **7** [일] 5일간 대구광역시 중구 약령시 일원

대구의 봄, 5월 꽃놀이 명소

유채꽃부터 장미까지
가족·연인과 즐기는 봄꽃 나들이



봄꽃의 대표 격인 벚꽃이 진 자리.

찌는 듯한 대구의 여름이 오기 전, 연인 가족들과 꽃놀이 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

봄의 전령사들의 황홀한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5월 꽃놀이 명소를 소개한다.

하중도 유채꽃 (4월 말-5월 초)

대구 대표 힐링 여행지로 주목받는 핫 플레이스 금호강 하중도는 포근한 강바람 속 봄 유채꽃을 즐기기에 좋은 최고의 꽃놀이 명소다.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이 역대 하루 최고치인 7천 8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하중도를 찾는 시민들이 크게 늘었다.

시민들은 넓은 대지에 펼쳐진 유채꽃 뿐 아니라 청보리와 억새, 튜립까지 볼 수 있어 최고의 휴식처라는 반응이다. 대구시는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하중도를 전국 관광 명소화 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무엇보다 3호선으로 접근성이 좋아져 대중교통으로도 방문이 용이해졌다. 대구시는 내방객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중도 내 임시주차장(250면)과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 설치 했다. (대구 북구 노곡동)



월곡 역사 공원 겹벚꽃 (4월 말-5월 초)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한 월곡역사공원은 '왕벚꽃(겹벚꽃)'을 볼 수 있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일반 벚꽃보다 더 짙은 진분홍빛을 띠고 꽃잎이 겹겹이 핀 왕벚꽃은 벚꽃이 지는 시기인 4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만개하고 5월초까지 볼 수 있어 '벚꽃엔딩'의 주인공으로도 불린다.

주말이면 왕 벚꽃터널을 보기위한 가족연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특히 출사지로도 알음알음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다. 공원 내 대나무 숲과 철쭉도 볼 수 있고 곳곳에 쉼터가 잘 정비되어 있어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인기 만점이다. (대구 달서구 송현로7길 38)

비슬산 참꽃 (4월 말-5월 초)

대구의 명산 비슬산은 매년 봄이 되면 30만평의 거대한 참꽃군락지가 진분홍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를 보기 위해 매년 35만명 이상 방문할 정도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관광객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위해 휴양림 입구에서 대견사 정상까지 반딧불이 전기차(편도 5,000원)를 운행하고, 국립대구과학관 부근 임시주차장에서 휴양림 입구까지 시내버스 맞춤노선(축제기간 중 주말만 운행, 일반 버스요금 적용)도 특별 편성했다. 참꽃 잎을 따먹던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비슬산을 찾는 건 어떨까? (대구 달성군 유가면 양리 산10)



이곡 장미 공원 장미 (5월 중순)

장미의 계절 5월 이곡 장미 공원의 장미원 4792㎡에는 콘라트헹겔, 하모니, 루지메이앙, 란도라, 몬타나 등 123종 1만7000여 그루의 장미가 심어져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5월 13에서 14일까지는 로즈가든 프로포즈 이벤트, 장미원 플래시몹, 장미차 시음회 등이 진행되는 장미 축제 '장미꽃 필(feel) 무렵'이 시민들을 기다린다. 빨강, 분홍, 노랑, 연보라 등 총천연색 장미를 만나볼 수 있는 이곡장미공원의 장미는 5월 초부터 피기 시작해 종에 따라 6월까지 볼 수 있다. (대구 달서구 이곡동)

글 편집국 / 사진 대구시 블로그 제공



뭉티기 생고기전문 송학구이

전 연령층 마음 사로잡은

'송학표 특제 양념장과 뭉티기 생고기의 환상궁합'

본보는 음식명가 연재를 통해 고객과 독자의 입장, 맛, 서비스 수준을 심층 분석한 데이터로 지역음식 적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음식명가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학술연구기관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객관적 평가지표로 제시한 서비스 품질 측정방법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 및 의사소통 등 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유형성'을 비롯해 서비스의 철저함 등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는 '신뢰성', 서비스 제공 의지를 나타내는 '응답성', 직원의 능력과 예절, 업체의 신용도, 안정성 등을 뜻하는 '확신성', 접근 가능성과 고객 이해 등을 내포한 '공감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토대로 실시한 평가 결과, 대구 수성구 들안로 65 위치한 '송학구이'가 영예를 안았다.

송학구이의 '뭉텅이, 뭉치'의 경상도 사투리 뭉티기란 뭉텅 뭉텅 자른 한우 생고기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육사시미, 경상도에서는 뭉티기, 전라도는 생고기 등으로 불리운다. 뭉티기는 대구 10미에도 등장할 만큼 단백질,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에 탁월하고 '리보플라빈'은 소화기 점막의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효과가 뛰어나며, '라이신'이 풍부하여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최고의 식품 중 하나다. 또한 주류와 함께 안주로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대구 전통음식이다. 그 중 70년대에 개발하여 완성한 특별 양념장으로 대구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송학구이'는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특히나 많은 애주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

송학은 1962년 아카데미극장 골목에서 구이집과 횡집을 오가다가 현재의 뭉티기 전문 구이집으로 정착했다. 초창기는 시내 중앙로의 숯 창고를 얻어 성당동 도축장에서 나온 내장을 갖고 와 막창, 곱창을 구워 팔다가 62년부터 아카데미 극장 근처에서 횡집과 구이집을 겸하여 송학이라는 상호로 출발했다. 송학이 번창하기 시작한 건 2대 사장 김정태씨의 아내 박영숙씨의 남다른 손맛과 넓은 마음씨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박영숙 송학구이'로 불리며 지금 송학의 디딤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2011년 들안길에 3대 사장인 20대 김성준씨(29)가 등장한다. 성준씨는 사대부고 2학년 시절 갑작스레 위중해지신 어머니로부터 가업을 이어 받기 위해 조리학과에 진학해 기초부터 다지기로 했다. '악바리 근성'



으로 '재료에서 밀리면 끝'이라는 신념 때문인지 요즘 20대 같지 않게 매일 새벽 칠성, 매천시장에서 찬거리 구입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또한 생고기의 생명은 고기의 신선도와 품질인 것을 잘 알기에 매일 영천, 군위, 고령 도축장을 번갈아가며 좋은 고기를 직접 공수해온다. 성준씨의 별난 애착 때문인지 깨끗한 매장관리와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한 고객의 발걸음이 늘면서 요즘은 20대 남녀커플, 회식하는 직장인, 중년 부부 등 다양한 연령층들이 많이 찾게 되었다. 2대 사장 김정태씨는 "사장이 젊어져서 그런지 가게에 손님들도 젊어졌다"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송학의 비법은 송학만의 특제 양념장이다. 고춧가루, 마늘, 기름과의 환상적인 비율로 탄생한 양념장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건 아니다. 70년대 참기름에 송학만의 첨가물을 가미하여 '송학표 맛기름'을 개발한 것이다. 맛기름은 마늘, 고춧가루, 기름장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되었다.

또한 생고기 외에도 육회, 대창구이, 양지머리구이, 대구찜, 가오리찜, 대구수육, 소고기튀김, 대구탕 등 다양한 메뉴도 갖추고 있어, 생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다. 최대 300명을 동시수용 할 수 있고, 34명까지 동시에 앉을 수 있는 룸과 넓은 주차장을 구비하고 있어 단체모임이나 각종 회식에도 잘 어울린다.

김원현 기자



5월 문화가 소식

가족오페라 <마술피리>

일시 2017년 05월 27일(토)

장소 (재)대구오페라하우스

문의전화 053-666-6000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여름방학 특집으로 27일(토)과 28일(일) 오후 5시 모차르트의 걸작 오페라 <마술피리>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공연한다. <마술피리>는 사랑과 모험이 가득한 동화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왕자 '타미노'와 공주 '파미나', 공주의 어머니이자 악당으로 등장하는 '밤의 여왕', '밤의 여왕'과 대결하며 선을 지키는 인물 '자라스트로'와 그 밖에 '파파게노'와 '파파게나', 밤의 여왕의 '세 시녀' 등이 펼쳐는 흥미로운 이야기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대구오페라하우스와 친해질 수 있도록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4시부터 '얼음터널' 통과 놀이를 즐기고, 오페라 의상체험, 페이스페인팅, 신기한 마술쇼도 함께할 수 있다.

<2017 재즈 인 대구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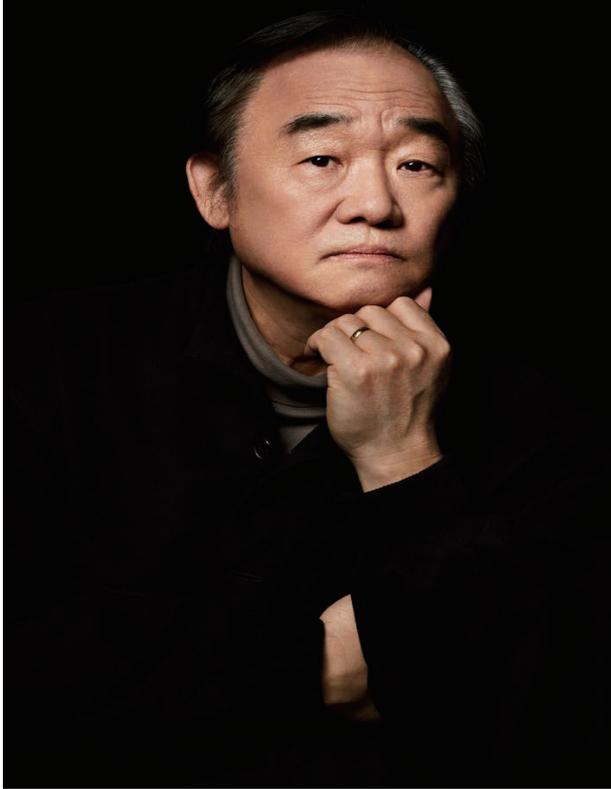
일시 2017-05-20 ~ 2017-05-21

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문의전화 053-584-8719

지역 및 해외 우수 아티스트를 초청해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재즈, 월드뮤직을 선보이는 재즈 인 대구 페스티벌이 다시 열린다. 2016년 지역의 국제문화행사 개최 자생력을 배양하고자 처음 기획된 페스티벌인 만큼 올해도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1일 만원, 2일 만 오천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본 공연은 볼케이노 리틀 빅 밴드, 에르네스토 홀만 에스노재즈 트리오, 손드리 필링, 네이키드, 에후드 에툰 트리오, 제이퍼 소우자, 서미현 트리오, 복스 삼부 등이 출연한다.관람객을 위한 부대행사, 체험부스와 스낵부스도 마련되어 페스티벌다운 면모를 갖추어간다. 아시아 유일의 재즈 중심 마켓 '재즈 인 서울'의 로컬 로드쇼로 진행된 '재즈 인 대구'는 재즈 마니아만을 위한 축제가 아닌,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대중들의 축제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명연주시리즈: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17-05-30(화)

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문의전화 053) 250-1400

한국이 낳은 세계적 거장, 건반 위의 구도자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열린다.

피아니스트 백건우는 세계 어디를 가도 최고의 예우를 받는 아티스트이지만 일흔의 나이에도 피아노 연습과 악보 연구에 매일 6시간을 매달리는 등 끝없이 노력하는 자세와 청중을 향한 따뜻한 감성을 지닌 이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이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구도자적 자세로 한국 클래식계 큰 거목으로 자리잡은 그가 2017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 연주 전국 투어로 그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었던 특별한 리사이틀을 갖는다. 10년 전 "무엇보다 긴장되고 기대되고 저도 궁금하고 흥분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던 백건우는 같은 마음으로 또 한번의 대장정을 준비하고 있다.

최현우 블록버스터 매직쇼 2017 The 최현우 <ASK?>

일시 2017년 5월 5일

장소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

문의전화 053-625-9222

마술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초대형 매직 블록버스터 2017 The 최현우 <ASK?>가 열린다. 20년간 마술 노하우를 집대성한 공연으로 1,000여회 공연, 86만 3천 관객을 동원한 최현우의 120분의 마술이 환상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Ask>마술쇼는 최현우가 3년간 공들여 기획한 공연이다. 그는 프로데뷔 20주년을 맞이해 마술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 공연을 준비했다.

역대급 초대형 스케일, 그랜드 일루전 마술, 11톤 트럭 5대 규모의 거대한 세트, 무대 전면을 활용한 영상 맵 등. 국내 첫 공개되는 마술부터 관객이 열광했던 최고의 마술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

마술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초대형 매직 블록버스터
The 20th Anniversary

2017 The 최현우
ASK?
& answer! .



영남대학교 대학원 「기술혁신·기업가정신 학과」 석·박사 과정모집 안내

Departm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 Entrepreneurship

기업이 뽑은 '최우수 대학', 기업이 배출의 산실 영남대학교에서
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와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 2017학년도 후기 대학원 모집: 2017. 5. 29(월) ~ 6. 9(금)

* 본 모집 기간 이외에 추가모집 기간 별도로 있음.

학과 소개

- 기술혁신역량과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성공 창업과 사내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가적 인재 양성과 더불어 단순 지식전달이 아닌 새로운 기회 인식과 창출을 위한 체험적 기업가정신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특별 교육기관입니다.
- 전문 학위를 수여하는 특수대학원이 아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일반대학원이며, 석사 및 박사과정과 더불어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 기술창업을 위한 사업화 모델 및 전략 습득
- 사내기업가 양성을 위한 혁신 및 기업 관리 과정
- 창업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전문가 양성 과정

학생 혜택

- 신입생 장학금 지급(등록금 할인)
- 재학생 연구활동비 지급 및 창업부문 자문 역할
- 학위 과정 수료 후 교내외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 강의 기회 제공

모집 기간

- 2017학년도 후기 대학원 모집: 2017. 5. 29(월) ~ 6. 9(금)
-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모집: 2017년 10월 중 예정

* 본 모집 기간 이외에 추가모집 기간 별도로 있음.

지원 자격

석사의 경우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박사의 경우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이며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비동일계 출신자도 지원 가능함.

모집인원

석사과정 0명, 박사과정 0명
(석박사통합과정 모집인원은 박사과정 모집인원의 50% 범위 이내로 함)

선발 절차

인터넷접수 → 서류제출 → 면접고사 → 합격자발표 → 합격자등록
*상세일정은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http://graduate.yu.ac.kr/> 참조

신청 등 관련 문의

- 영남대학교 대학원 053)810-3754, 3755, 3766, 3767
- 영남대학교 기업가센터 053)810-1596, 1597, 1598
(<http://eship.yu.ac.kr/eship>)

한국경제기획연구원 경북도 시·군 장학금 기부 손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난 2월 10일 경북도 시군을 선정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이번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전달되어 학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소관 종합 학술연구기관이자 공익법인으로,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한 기여분 제도를 통해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사장 이진구)은 장학금에 대해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만큼 지역의 주춧돌이 될 핵심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고, “앞으로도 대구경북 지역 인재육성에 일임을 다할 것”이라며 소신을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2005년 설립된 대경인재개발원과 부설인 대경연수원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의 밝은 미래를 견인하는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에 힘써왔다.



김천시, 진주서 우수 미래전략 현장 교육 워크숍

김천시는 새로운 비전 및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방향 및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우수 미래전략 현장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영박 김천시 기획조정실장과 8·9급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진주시의 우수 시책사업을 벤치마킹해 김천시와 김천혁신도시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류현병 진주시 경제통상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진주시의 우수시책 사례 발표에서는 진주시 3대 신성장 산업(우주항공·부리·세라믹산업) 육성정책, 남강유등축제 성공사례 및 국비확보사업(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우주부품시험센터, 항공전자기 기술센터)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획력 강화 기법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강연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분임토의를 통해 실제 적용 가능한 시책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당 대경 선대본부, TK출신 합류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대구와 경북지역 선거대책본부에 지역 출신의 낮익은 고위관료들이 잇따라 합류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경찰청장이 개방형으로 전환되면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구가 고향인 이상식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구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2014년부터 2015년 말까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경신고를 졸업하고 경찰대 5기를 수석입학한 뒤 치안정감까지 승진했다.

이 전 청장은 “학창시절을 대구에서 보냈고 2년간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한 만큼 부산과 함께 대구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표몰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대구도시철도, 중국 중경모노레일과 기술교류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는 중국 중경모노레일 교통공정 유한책임공사 GUO YONG(곽용) 총경제사 외 5명이 2월 13일~2월 14일(2일간)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의 기술교류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교류는 3호선 모노레일 예비품과 중국 국내 모노레일 관련 개발품에 대한 호환성 여부, 중경모노레일 벤치마킹을 통한 열차 안전운행 확보 및 공동목표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올해중으로 차량 벤치마킹과 분기기장치 기술연수를 위해 중경모노레일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중심병원 10곳 손잡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재태, 이후 첨복재단)은 4월 25일(화) 연구중심병원 10곳과 첨복재단에서 간담회를 갖고 향후 글로벌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협업하기로 했다. 연구중심병원은 연구조직, 인력 등을 기준으로 지정된 국내 10개 병원으로 ‘가천대 길병원, 경북대 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 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이다. 이들 연구중심병원 관계자들은 첨복재단을 방

문, 우수한 인프라를 확인하고 향후 공동 연구사업 발굴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연구중심병원 10곳의 연구부원장 등 20여명은 오전 10시 대구 첨복재단을 방문하여 시설 및 장비 인프라와 우수 인력을 직접 확인하고, 상호 협업사례를 공유한 후 오찬을 함께 하며 공동연구 방안을 논의했다.



가은 · 다은실 가족 초청권

INVITATION

VIP

· 유효기간 2017. 5. 1 ~ 2017.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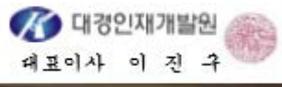
대경연수원 VIP 초청권

팔공산 자락의 청정자연 속 대경연수원으로 특별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예약 및 이용문의 운영팀 053-766-1368

| | | | |
|-----|---|-------|-------|
| 장 소 | 대경인재개발원 부설 대경연수원 | 이 용 자 | _____ |
| 객실형 | 인(仁) <input type="checkbox"/> 의(義) <input type="checkbox"/> 예(禮) <input type="checkbox"/> 지(智) <input type="checkbox"/> | 이용일자 | _____ |
| 요 금 | 30% 할인 | 예약번호 | _____ |

- 본 권의 유효기간은 2017년 5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입니다.
- 회원우선 예약제도에 따라 잔여객실이 있어도 예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말과 유효기간 내 연휴 및 휴일전날은 운영이 제외됩니다.
- 객실예약은 배수기 주중 이용일 30일전, 배수기 금요일 15일전 (성수기, 주말 사용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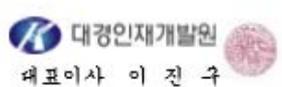
대경연수원 VIP 초청권

팔공산 자락의 청정자연 속 대경연수원으로 특별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예약 및 이용문의 운영팀 053-766-1368

| | | | |
|-----|---|-------|-------|
| 장 소 | 대경인재개발원 부설 대경연수원 | 이 용 자 | _____ |
| 객실형 | 인(仁) <input type="checkbox"/> 의(義) <input type="checkbox"/> 예(禮) <input type="checkbox"/> 지(智) <input type="checkbox"/> | 이용일자 | _____ |
| 요 금 | 30% 할인 | 예약번호 | _____ |

- 본 권의 유효기간은 2017년 5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입니다.
- 회원우선 예약제도에 따라 잔여객실이 있어도 예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말과 유효기간 내 연휴 및 휴일전날은 운영이 제외됩니다.
- 객실예약은 배수기 주중 이용일 30일전, 배수기 금요일 15일전 (성수기, 주말 사용불가)





‘대경인재개발원’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교육 및 프로그램

- 인재양성
- 학점인증제
- 교육훈련
- 리더십 역량개발
- 성공 및 감성마케팅
- 편(Fun) 경영 등 경영전략
- 창업 및 기업가 정신
- 테마별 맞춤 특강
- 주민자치대학, 좌담회, 토론회 등



[주]대경인재개발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38-3. 3층
Tel) 053.721.6757 Fax) 053.766.0379